

K-반도체기업, 차세대 기판·패키징 기술 공개

KPCA Show 2025

기술력 기반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서
삼성전기 글라스코어 기판 소개
LG이노텍 ‘코퍼 포스트’ 기술 시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전시회에 나란히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을 선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베시아에서 열리는 ‘KPCA 쇼 2025’에 참가한다. KPCA 쇼는 한국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KPC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전문 전시회다.

삼성전기는 이번 전시회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 ▲AI & 전장 패키징 기판 두 개의 테마로 부스를 운영한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에서는 현재 양산중인 하이엔드급 AI·서버용 FCBGA의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해당



삼성전기 'KPCA Show 2025' 전시부스.

제품은 일반 FCBGA 대비 면적이 10배 이상, 내부 층수는 3배 이상 구현된 최고난도 사양으로, 삼성전기는 국내 유일 서버용 FCBGA 양산 기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고성능화에 대응해 ▲실리콘 인터포저 없이 반도체와 반도체를 직접 연결하는 2.1D 패키징 기판 기술 ▲SoC(시스템 온 칩)와 메모리를 하나의 기판에 통합한 Co-Package 기판 등을 선보인다.

특히 삼성전기는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라스코어 패키징 기판

을 소개한다. 글라스코어 패키징 기판은 기존 기판 대비 두께를 약 40% 줄이고, 대면적 기판에서 발생하는 휨 특성과 신호 특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LG이노텍은 전시 부스 가장 앞부분에 하이라이트존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퍼 포스트 기술을 선보인다. 코퍼 포스트 기술은 반도체 기판에 작은 구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납땜용 구슬인 솔더볼을 얹어 기판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솔더볼을 기판에 직접 부착하는 기존 방식보다 솔더볼의 면적

과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존 대비 더 많은 회로를 반도체 기판에 배치할 수 있고 기판의 크기도 최대 20%가량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의 차세대 반도체용 부품 성장동력인 FC-BGA도 하이라이트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세 패터닝, 초소형 비아(Via·회로 연결구멍) 가공 기술 등 독자 기술이 적용된 FC-BGA는 고집적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고성능 기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기 LG이노텍 'KPCA show 2025' 부스 전경.

/LG이노텍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재고 필요”

소상공인연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정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취임 후 경제계 첫 방문지로 소공연을 택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아울러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창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회 안 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10대 과제’를 민주당측에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코프로 신규 캐치프레이즈 공개

에코프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레이 AI, 플라이 에코프로(Play AI, Fly EcoPro)’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하고 제조·연구개발·품질 등 전 부문에 AI 도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해 ‘Play AI, Fly EcoPro’를 에코프로의 AI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문구는 임직원들이 즐겁고 친근하게 AI를 업무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와 함께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티엑스알로보틱스 로봇AI연구소 설립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가 로봇·인공지능(AI) 융합 기술 연구에 본격 나선다.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로봇AI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로봇과 AI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기술 검증, 산업 적용, 알고리즘 개선, 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전 과정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로봇·AI 기술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승호 기자

MSPO 2025

한화 방산3社, ‘APS’ 등 유럽 맞춤형 솔루션 제시

〈능동방호체계〉

지상·해양·우주 첨단무기체계 소개
합작법인 설립 계약 등 현지화 박차

한화방산3사(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가 유럽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지상·해양·우주를 아우르는 첨단 무기 체계를 공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형 방산 솔루션의 기술력을 현지에 각인시키고, 동시에 합작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으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넓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방산3사는 오는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 공동 참가했다. 한화방산3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맞춤형 방산 솔루션을 선보이며 유럽 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에서 전차와 자주포의 ‘최후 방패’로 불리는 능동방호체계(APS)를 폴란드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 APS는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차량의 포탑에 탑재돼 대전차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공격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체를 무력



MSPO 2025에서 최초로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능동방호체계(APS).

/한화시스템

화하는 첨단 생존 장비다.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어 오는 2026년 연구개발 완료로 목표 기술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APS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또한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블록-I’도 출품했다. 천광은 레이저를 목표물 표면에 직접 조사해 외부 구조물이나 내부 전자장치를 파괴하는 ‘하드 킬

(Hard Kill)’ 방식으로 운용된다. 발사당 비용은 약 2000원 수준으로, 미사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용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레이저 사업을 인수하며 그룹 내 레이저 무기 역량을 일원화한 바 있으며 정밀 전자광학 기술과 결합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 전시와 더불어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협

력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 WB그룹과 다연장로켓 ‘천무’ 유도탄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합작법인은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과 현지 인력 채용을 추진해,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유도탄 CGR-080을 생산한다. 생산 물량은 폴란드에 우선 공급되며, 추후 양사 협의를 통해 생산 단종을 다양화하고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방산3사는 이번 MSPO 2025 참가를 계기로 ▲차세대 방호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정밀 감시·정찰 기술 ▲현지 합작생산 체계 등 종합적 기술력을 선보이며,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와 글로벌 진출 교두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손재일 대표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로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작법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별 맞춤 현지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v2665@

KAI,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선포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참가해 주력 기종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SPO에서 KAI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48대 계약 체결(30억 달러 규모)하며 유럽 수출길을 개척한 FA-50 다목적 전투기를

필두로 차세대 첨단 국산 전투기 KF-21,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 소형무장헬기(LAH) 등 고정익과 회전익을 망라한 주력 기종을 선보인다.

KF-21과 FA-50에 연동될 무인 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

AP)를 전시하고 수리온과 LAH에 공중발사무인기(ALE)를 적용해 미래전장에서 탐지·공격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인 유무인복합체계(MUM-T)가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